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12월 18일 월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강원도민일보	23면	도 일자리대상 시상식	1
江原日報	02면	"소양강댐 지역사회 환원 함께 고민할 때"	1
강원도민일보	01면	"50년간 쌓인 소양강댐 피해, 정부차원 지원 찾겠다"	2
강원도민일보	04면	소양강댐 미래 가치 확보 "강원특별자치도 기적 만든다"	3
江原日報	11면	"횡성에 이모빌리티 분야 공공기관 유치"	4
강원도민일보	03면	도의회 "도 무리한 사업 소신발언 공직자 필요"	4
KBS 춘천	온라인	강원도의회, '일단시켜' 선정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 건 가...	5
강원도민일보	23면	도의회 입법평가위 개최	5
위클리오늘	온라인	[위클리오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미희 의원, 강원 맨발 ...	6
정도일보	온라인	원미희 강원도의원, 조례 개정 대표발의를 통해 강원 맨발 ...	7
KBS	온라인	강정호 "도립대, 외국인근로자 공급·교육 역할해야"	8
MBC 강원영동	온라인	강정호 도의원, "외국인 근로자 문제 강원도립대 통해 해결"	8
위클리오늘	온라인	[위클리오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정호 의원 "강원도립...	9
강원신문	온라인	박기영 도의원, 임업재해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	10
스포츠서울	온라인	박기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임업재해 줄...	11
강원도민일보	17면	[의정칼럼] 북양양IC~떡밭재 직선도로 강원도가 직접 해...	12
江原日報	21면	"기업하기 좋은 강원 함께 만들자"	13
강원도민일보	06면	강원발전경제인협 지역발전 공로자 13명 표창	14
강원도민일보	23면	"문화특별자치도 이룰 주민 주도 움직임 일어나야"	15
강원도민일보	11면	송정동 단체협·주민센터 어르신 효잔치	15
江原日報	13면	고성군 희망나눔 봉사인의 밤	15
강원도민일보	21면	"치유·순례길 조성 종교·문화·예술 중심지 거듭"	16
강원신문	온라인	홍천여성의용소방대, '2023 연말총회' 성황리에 열려	17
江原日報		[포토뉴스]대한적십자봉사회 고성군협의회 2023년 희망나...	18
江原日報	온라인	[포토뉴스] 화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화합의 장	19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19
강원도민일보	02면	당정 '2024강원대회 지원' 오늘 머리 맞댄다	20

강원도민일보	05면	동해 망상1지구 전 사업자, 대체사업자 공모 집행정지 소 ...	20
江原日報	01면	道, 국내 첫 글로벌혁신특구 도전 '최종 관문 진출'	21
江原日報	02면	道, 국내 첫 글로벌혁신특구 도전 '최종 관문 진출'	21
강원도민일보	04면	양양공항 7개월 만에 국제노선 운항 재개 주목	22
강원도민일보	04면	춘천고 자율형공립고 전환 추진...도 교육청 "정해진 것 없...	22
江原日報	01면	올겨울 '최강 한파' 이번 주 내내 끔끔	23
강원도민일보	17면	[사설] 농촌 유학, 작은학교 회생 기대	24
강원도민일보	17면	[사설] 강릉 20만명 위기, 도시경쟁력 우려	25
江原日報	19면	[사설] 올 강원자치도 수출 '선방', 지속 가능토록 해야	26
江原日報	19면	[사설] 한 달 남은 '동계청소년올림픽', 평창의 열정으로	27

강원도민일보

2023 12 18 ()

23



도 일자리대상 시상식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시상식이 지난 15일 춘천 스키 컨벤션에서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회의장과 수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릉 '파마리서치'가 대상을 수상했다. 서영

2023 12 18 ()

江原日報

02

“소양강댐 지역사회 환원 함께 고민할 때”

준공 50주년 기념식 열려
지역발전 인프라 도약 다짐
인근 주민 보상 지원 당부도

환경부가 준공 50주년을 맞은 소양강댐을 미래 세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수자원 인프라로 재도약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댐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주변지역 지원사업 확대와 주민들의 피해 보상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15일 소양강댐 시민의 숲에서 ‘소양강댐 준공 50주년 기념식’을 갖고, 댐의 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했다.

이 자리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 한기호·허영·노용호 국회의원, 육동한 춘천시장, 서흥원 양구군수, 최상기 인제군수,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인장환 K-water 강원지역협력담당장, 채병수 소양강댐지사장 등이 참석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일상화된



◇소양강댐 준공 50주년 기념식이 지난 15일 춘천시 신북읍 소양강댐 시민의 숲에서 열린 가운데 내빈들이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이날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진태 지사, 권혁열 도의장, 한기호·허영·노용호 국회의원, 육동한 춘천시장, 서흥원 양구군수, 최상기 인제군수,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참석했다. 신세희기자

기후위기와 심화되는 이상기후현상에 대비해 전국적으로 신규 댐을 건설하는 한편 소양강댐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지사는 “소양강댐 건설로 한강의 기적이 이뤄졌지만 동시에 수몰민의 아픔을 만들었고, 상수원 보호규제 등으로 인해 댐 주변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이제 우

리의 목소리를 요구하고 찾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열 도의장은 “강원도는 소외되고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며, 모든 것을 수도권에 주기만 했다”며 “이제는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국회의원들 역시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지역사회 환원을 강조했다. 한기호 국회의원은 “소양강댐이 진정한 헛터가 될 수 있도록 교량

건설 등의 지원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허영 국회의원은 “아픔이 있는 주민들을 위로하고 피해 보상을 해야 하며, 보상을 위한 법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용호 국회의원 역시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해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서희기자 wiretheasia@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 12 18 ()

01

“50년간 쌓인 소양강댐 피해, 정부차원 지원 찾겠다”


 소양강댐 준공 50주년 기념
소양강댐의 빛과 그림자

소양강댐 준공 50년을 맞아 댐 피해보상과 대책마련을 위한 지역 차원의 대응이 시급해졌다. 김진태 지사와 권혁열 도의장, 육동한 시장 등 지역대표들이 잇달아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답변, 소양강댐의 피해보상에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1973년 10월 15일 소양강댐 준공으로 춘천, 인제, 양구의 50.2㎢가 수몰됐다. 수몰민만 3153가구, 1만8546명에 이른다. 연 12억t 규모의 생활·공업용수와 1300만t의 농업용수를 수도권 일원에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지역의 피해는 현 재진행형이다. 인제와 양구는 길이 끊겨 육지 속 고도가 됐고 춘천을 비롯한 댐 소재·주변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규제에 발이 묶였다. 강원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소양강댐 건설로 인한 피해는 지난 50년간 6조8300억~10조 1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최근 소양강댐 시민의숲에

지사·도의장·국회의원 대책 요구

환경장관 소양강댐 기념식서 답변

“수몰민 희생으로 소양강댐 준공”

10조원 이상 피해 논의 여부 주목

서 열린 소양강댐 준공 50주년 기념식에서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소양강댐으로 이룬 ‘한강의기적’ 뒤에는 수몰민 2만여 명의 아픔이 있다. 이분들은 갈 곳이 없고 상수원 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아무것도 못한다”며 “이제는 우리가 담당하게 우리 몫을 요구하고 찾아와야 한다”고 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소양강댐 준공 50년을 맞아 이제는 희생 편익에 대한 균형있는 논의가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들도 동참했다. 한기호 국회의원은 “소양강댐이 들어서면서 면 행정복지센터까지 차로 1시간 30분이 걸리는 마을이 생겨났다”며 “다리 하나 놓으면 되는데 접지가 없다. 소양호에 다리를 놓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허영 국회의원은 “새로운

50년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할 역할과 임무가 크다”고 보상을 촉구했으며 노용호 국회의원은 “희생에 대한 대가와 존중이 완벽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장도 “소양강댐, 집경지역으로 대표되는 강원도는 소외되고 낙후됐다”며 “강원도는 물과 전기 모두 수도권에 주기만 한다. 재산권 행사도 못한다”고 했다.

이처럼 소양강댐 준공 기념식은 지역 희생에 대한 불만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자리로 변했다. 이에 대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본지 기자에게 “수몰민의 희생이 없었다면 소양강댐 준공도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오세현

▶ 관련기사 4면



소양강댐 준공 50주년 기념식이 지난 15일 오후 소양강댐 시민의숲 주차장에서 열렸다.

서영

소양강댐 미래 가치 확보 “강원특별자치도 기적 만든다”

댐 준공 50주년 기념식

한강의 기적을 이룬 소양강댐이 준공 50주년을 맞아 이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견인할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협력하기로 했다.

소양강댐 준공 50주년 기념식이 최근 소양강댐 시민의숲 주차장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 육동한 춘천시장, 서흥원 양구군수, 최상기 인제군수, 허영·한기호·노용호 국회의원, 김진호 춘천시의회장, 조돈준 양구군의회장, 경민현 강원도민일보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1973년 10월 15일 준공된 소양강댐

의 지난 50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소양강댐의 역사적 의미를 되짚었다.

높이 123m, 만수위 198m, 총저수용량 29억t에 이르는 소양강댐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었다. 수도권 45%를 대상으로 용수를 공급하고 있고 홍수피해 저감과 전력 공급 등 대한민국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댐 건설과정에서 1만8000여 명의 수몰민이 발생하는 등 지역의 피해도 적지 않았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소양강댐은 지난 반세기 경제발전과 도시 건설, 물복지 향상에 중추적 역할을 했다. 소양강댐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성장도 없었을 것”이라며 “물 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양강댐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명품 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진태 지사는 “소양강댐은 경부고속도로와 서울 지하철에 이은 정부의 세번째 국가사업”이라며 “지난 50년간 한강의 기적을 이룬 소양강댐이 이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기적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육동한 시장은 “소양강댐으로 춘천은 호반의 도시가 됐고 아름다운 경관은 매년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됐다”며 “미 연결된 댐 주변 구간을 잇고 소양강댐이 첨단 지식산업도시 구현의 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현 tpgus@kado.net

江原日報

“횡성에 이모빌리티 분야 공공기관 유치”

본보·횡성군·군의회 ‘군 정책포럼’ 개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 ... 농업 등 분야도 적합
방문객 거주지 경기 32.6% 실질적 수도권화

【횡성】횡성 방문객들의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가 가장 많아 실질적인 수도권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기관 유치는 이모빌리티 산업 분야와 농·식품 전문 기관으로 특화시켜 추진해야 하고, 생활인구 확대는 실태와 동향에 대한 정밀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강원일보사와 횡성군, 횡성군의회가 지난 15일 횡성문화원에서 개최한 ‘2023 횡성군 정책포럼’에서 송우경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의 비교우위 특화산업과 연계된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하며, 일

례로 이모빌리티 산업과 관련된 교통 물류, 이모빌리티 관련 기관과 농업·바이오 식품 등 기관이 적합하다”고 제시했다.

정영호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횡성 방문객 거주지를 분석한 데이터에서 경기도가 32.6%로 강원도 30.8%보다 더 많았고, 도내에서는 원주시 거주자가 59.2%”라고 했다.

권혁순 강원일보 논설주간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전영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운현 횡성군의원, 임광식 횡성군 투자유치과장, 김원동 강원대 교수, 최정민 강원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



◇강원일보사, 횡성군, 횡성군의회는 지난 15일 횡성문화원 발표회장에서 ‘2023 횡성군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회 책임연구원, 이재성 횡성문화재단 대표가 참여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명기 군수, 김영숙 군의장, 최병수 강원일보 전무이사, 표한상 부의장, 김은숙·백오인·박승남 군의원, 한창수 도의회 부의장, 김경너 횡성교육장, 김숙자 횡성소방서장, 엄경의 횡성축협 조

합장, 이창진 민주평통 횡성군협의회장 등 기관·단체장과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김명기 군수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론 등 좌절과 패배감을 확산시키는 요소도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최병수 전무이사는 “KTX 역 2곳, 영동·중앙 등 고속도로 2개 노선, 공항 등 횡성의 입체적 교통 인프라는 무한한 성장 잠재력의 상징”이라고 했다.

김영숙 군의장은 “포럼에서 제시된 발전적 대안들을 정책에 담아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학렬기자

강원도민일보

도의회 “도 무리한 사업 소신발언 공직자 필요”

하석균, 최문순 도정 ‘실패’ 규정
김용래 “도 현행 감소” 동참 촉구



하석균 지광천 강정호



김용래 한창수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무리한 사업에 소신껏 반대할 수 있는 공직자가 필요하다”며 강원도내 고위공직자의 역할을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석균(원주)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324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강원중도개발공사 토지 매각, 전기차 업체 디피코,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강원형배달앱 ‘일단시켜’ 등 전임 최문순 도정의 사업들을 “실패한 사업”으로 규정하며 공직자의 변화를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광천(평창) 의원은 이익의 성호사설에 등장한 ‘썰매’ 활동 기록을 언급하며 “한국의 동계스포츠 역사, 올림픽 유치 과정 등을 기록과 유산으로 남기자”고 강조했다.

강정호(속초)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관리업무 전담기관 지정 대책을 발표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강원도대가 강원도내 외국인 근로인력 수급 및 관리업무를 전담할 것을 제안했다.

김용래(강릉) 의원은 “강원도 현행자는 지난해 기준 2018년 대비 약 4만 명이 줄었고, 고교생 현행자는 1만

4000명에서 4000여명으로 71% 감소했다”며 “현행 참여는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과 사회참여의 초석”이라고 현행 동참을 촉구했다. 한창수(횡성) 의원은 “체수 축소에 따른 건축예산심의는 고통스러웠지만 한편으로 어느 때보다 심도있게 해 효율적인 예산이 성립됐다”며 “경기침체에 대비해 지방재정의 체질을 변혁하는 기회의 해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설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일)가 지난 15일 제324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7조5862억원 규모 내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을 의결한 가운데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예산안 통과에 따른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3 12 15 ()

KBS 춘천

강원도의회, '일단시켜' 선정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 건 가결

강원도의회는 오늘(15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정효율화특위가 상정한 '강원특별자치도 민관 협력 배달앱 '일단시켜'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가결 시켰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지난달(11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일단시켜 운영 업체 선정 전에 강원도가 특정 업체를 미리 세 번 만난 게 확인됐다고 업체 선정 불공정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의회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는 다음 주까지 감사 청구서를 작성한 뒤 감사원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박성은

강원도민일보

2023 12 18 ()

23



도의회 입법평가위 개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임미선)는 지난 15일 도청 제2별관 중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2차 입법평가위를 개최했다.

사진제공=도의회

2023 12 15 ()

[위클리오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미희 의원, 강원 맨발 걷기 활성화 기틀 마련

박종성 기자



[강원 위클리오늘=박종성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원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 의원에 따르면 조례개정안은 기존 강원특별자치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의 '걷는 길'에 맨발보행로를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맨발 보행로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을 통한 맨발 걷기 활성화와 도민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맨발 걷기는 어싱(Earthing)으로도 불리며, 신발과 양말을 벗고 맨발로 황토, 마사토 등 부드러운 흙길을 걷는 운동법이다.

맨발과 땅이 만나면 몸 안의 면역력이 높아져 각종 체내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증대된다고 알려졌다. 특히 만성염증 예방, 불면증 완화, 스트레스 저항력 향상 등의 효과가 있다고 전해지면서 전국에서 맨발 걷기 열풍이 불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맨발보행로를 포함하여 걷는 길의 정의를 상세하게 규정하였으며 입법 평가에 따른 강원권 관광개발 계획 수립 관련 단서 조항 신설,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원미희 의원은 “맨발 걷기의 다양한 효과가 입증되며 전국적으로 맨발걷기 열풍이 불고 있는데 맨발 보행로는 그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맨발 보행로 조성이 활성화되어 관광인프라 확대 및 도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종성 기자 wknews005@kakao.com

2023 12 15 ()

원미희 강원도의원, 조례 개정 대표발의를 통해 강원 맨발 걷기 활성화 기틀 마련

최명구 ccmg0923@naver.com



(정도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원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오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개정안은 기존 강원특별자치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의 '걷는 길'에 맨발보행로를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맨발 보행로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을 통한 맨발 걷기 활성화와 도민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맨발 걷기는 어싱(Earthing)으로도 불리며, 신발과 양말을 벗고 맨발로 황토, 마사토 등 부드러운 흙길을 걷는 운동법이다.

맨발과 땅이 만나면 몸 안의 면역력이 높아져 각종 체내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증대된다고 알려졌다. 특히 만성염증 예방, 불면증 완화, 스트레스 저항력 향상 등의 효과가 있다고 전해지면서 전국에서 맨발 걷기 열풍이 불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맨발보행로를 포함하여 걷는 길의 정의를 상세하게 규정했으며 입법평가에 따른 강원권 관광개발 계획 수립 관련 단서 조항 신설,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원미희 의원은 “맨발 걷기의 다양한 효과가 입증되며 전국적으로 맨발걷기 열풍이 불고 있는데 맨발 보행로는 그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맨발 보행로 조성이 활성화되어 관광인프라 확대 및 도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 12 15 ()



강정호 “도립대, 외국인근로자 공급·교육 역할 해야”



[KBS 강릉]

강원도의회 강정호 의원은 오늘(15일) 강원도의회 정례회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 소멸 위기와 농어촌 인력난 속에 양질의 외국인근로자 유치와 관리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강원도립대를 활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강 의원은 최근 국제교류원을 만든 강원도립대가 해외 전문기술학교 등과도 연계돼 있다며, 외국인근로자 공급과 교육을 전담할 기구로서 강원도립대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원도와 도의회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3 12 15 ()

MBC 강원영동

강정호 도의원, "외국인 근로자 문제 강원도립대 통해 해결"

김인성

강원도 전역이 지역소멸지역에 포함돼 있어 곳곳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필요해지고 있다며 강원도립대를 외국인 근로자 전담기관으로 키우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강정호 강원도 의원은

제32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군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도 어렵고, 채용한다 해도 지난해 인제군의 경우 외국인 계절 근로자 326명 가운데 91%인 298명이 무단 이탈하는 등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립대에 설치된 국제교류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국제교류센터로 확대 운영하자고 강원도에 요구했습니다.

2023 12 15 ()

[위클리오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정호 의원 “강원도립대, 외국인 근로인력 수급·관리업무 전담해야”

박종성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정호 의원 “강원도립대, 외국인 근로인력 수급·관리업무 전담해야” 제324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서 주장

[강원 위클리오늘=박종성 기자] 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속에 강원도립대학교가 근로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수급 및 관리기능을 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정호 의원(국민의힘·속초)은 12월 15일 제324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강원도립대학교가 외국인 근로자 전담기관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속에 도내 근로 인력 부족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23년 2월 기준의 전국 시·군·구별 지방소멸위험 지표를 살펴보면, 강원자치도는 도내 18개 시·군 중 4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에, 아울러 12개 시·군이 ‘소멸위험전입단계’로 분류되면서 ‘소멸위험지역’ 비율은 무려 88.9%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무총리 주재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지자체의 MOU 체결업무를 포함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해 업무 위탁을 골자로 하는 ‘농업 계절 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 확정했다”면서 “그러나, 정부의 제도 개선책이 발표된지 1년이 넘었지만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관리를 대행할 전문기관 지정조차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 계획이 이처럼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운용하는 지자체 등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지난해 강원은 전체적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3천 949명을 배정받았지만, 실제 입국자는 2천949명에 그쳤으며, 이 중 17%(506명)는 작업장을 이탈했다”고 밝혔다.

강정호 의원은 또 “현행 제도상,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은 고용노동부에서, 그리고 농촌에서 절대 다수의 인력을 공급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소관 부처는 법무부로 이원화되어 있다”면서 “양질의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강원자치도가 전면 나서 되, 강원도립대학교가 외국인 인력의 수급 및 관리업무를 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원도립대학교는 도내 유일의 정부 재정지원사업 4관왕 달성을 비롯한 최근 3년 연속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경영평가 최우수 ‘S’ 등급 유지 등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현(現) 김광래 총장 취임 이래, 가장 먼저 추진한 과제가 바로 국제교류원을 설립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 것이고, 그동안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여러 국가의 지자체를 비롯한 고등교육기관, 전문기술학교 등과의 연계 노력을 펼친 결과, 당장이라도 6천여명의 외국인 근로인력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강정호 의원은 특히 “강원자치도는 외국인 근로 인력의 수급 문제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고, 강원도립대학교가 관련 업무를 전담해야 한다”면서 “현재 강원도립대학교에 설치돼 있는 국제교류원의 지원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국제교류원을 국제교류센터로 확대해 운영한다면 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속에 도내 근로 인력 부족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종성 기자 wknews005@kako.com

박기영 도의원, 임업재해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

김수미 기자

강원지역 '제4회 안전문화실천추진단 정기회의' 참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박기영(사진) 의원은 15일 오후1시 국립춘천숲체원에서 고용노동부 강원고용노동지청이 주최하는 『제4회 안전문화실천추진단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임업재해 관련 기초발제를 했다.

이 자리에서 박위원장은 “강원도는 면적 대비 산림비율이 81.5%인 지형적 특성상 임업재해율이 높을 수 밖에 없고 실제 최근 5년간 안전사고 건수도 1,048건으로 전국 최고 수준” 이고 “특히 임업분야는 광업, 건설업 다음으로 재해율이 높은 위험한 사업현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하기에 “강원권역 임업 사망사고는 전국 임업 사망사고 중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며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박기영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특별안건으로 “첫째, 산림 작업시 2인 1조 필수 둘째, 산림에서 작업하기 전 정확한 위치와 작업 내용, 인원을 미리 관할 소방관서에 신고 하는 시스템 구축 셋째, 임업재해 관련 현황 파악과 자료 및 정보 구축 넷째, 재해가 빈발하는 산림사업을 영세한 사업장에 발주할 경우 보다 철저한 안전교육 및 대책, 주의사항 주지 등”을 제시하면서 관련 기관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반드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임업현장에서 임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여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박기영 위원장은 “현재 산림청 발주 사업예산 가운데 인건비와 재료비를 합한 금액의 1.85%를 안전 비용으로 사용하는데, 장기과제로 안전비용의 상향 조정을 위한 법적 개정이 뒤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미 기자 gwnews@hanmail.net

2023 12 15 ()

스포츠서울

박기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
임업재해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

강원지역 제4회 안전문화실천추진단 정기회의』 참석



박기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스포츠서울 춘천=김기원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박기영의원은 12월 15일 (금) 오후 1시 국립춘천숲체원에서 고용노동부 강원고용노동지청이 주최하는 제4회 안전문화실천추진단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임업재해 관련 기초발제를 했다.

박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강원도는 면적 대비 산림비율이 81.5%인 지형적 특성상 임업재해율이 높을 수 밖에 없고 실제 최근 5년간 안전사고 건수도 1,048건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특히 임업분야는 광업, 건설업 다음으로 재해율이 높은 위험한 사업현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원권역 임업 사망사고는 전국 임업 사망사고 중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며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22~'23년 강원권역에서는 조사 대상 임업 중대(산업)재해는 총 9건 ('23년도는 12월 기준 5건)

이에 박기영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특별안건으로 “첫째, 산림 작업시 2인 1조 필수 둘째, 산림에서 작업하기 전 정확한 위치와 작업 내용, 인원을 미리 관할 소방관서에 신고 하는 시스템 구축 셋째로는 임업재해 관련 현황 파악과 자료 및 정보 구축 넷째, 재해가 빈발하는 산림사업을 영세한 사업장에 발주할 경우 보다 철저한 안전교육 및 대책, 주의사항 주지 등”을 제시하면서 관련 기관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반드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임업 현장에서 임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여나갈 것을 촉구했다.

또한 박위원장은 “현재 산림청 발주 사업예산 가운데 인건비와 재료비를 합한 금액의 1.85%를 안전 비용으로 사용하는데, 장기과제로 안전비용의 상향 조정을 위한 법적 개정이 뒤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acdcok4021@sportsseoul.com

강원도민일보

2023 12 18 ()

17

북양양IC~떡발재 직선도로 강원도가 직접 해결해야

의정칼럼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북양양IC와 떡발재 직선 연결도로 개설은 김진태 도지사, 이병선 속초 시장, 속초도의회원들의 공통공약이다. 도지사 공약으로 채택된 만큼, 사업이 실행될 경우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속초시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우선 지사께서 속초시민들의 숙원사업을 공약으로 채택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2016년 동해고속도로 양양~속초 구간이 연장 개통될 당시, 필자는 금융기관의 상무로서, 이 문제를 기고형식으로 집중 제기했었다. 당시 지역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공감하고,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도와 도로공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필자가 2018년 속초시의원으로 당선돼 8대 속초시의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현 시점에서 7년째, 꼭 필요한 이 사업은 속초시와 양양군의 입장차이로 진척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속초시와 양양군의 경계 지역에 위치한 '쌍천'이라는 하천을 기준으로 아래는 북양양IC가 있고 위로는 떡발재 도로가 있는데, 두 지역의 직선거리는 740m에 불과하지만 이 지역을 지나려면 4km의 우회로를 따라가야 한다.

직선 도로에 비해 거리가 늘어나는 것도 단점이지만 우회로가 겨우 1~2차선의 좁은 마을도로라는 것

이 가장 큰 문제다. 차선도 좁고 구불구불하여 사고의 위험도 크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들이 이 구간에서 병목 현상을 겪어 발생하는 교통 체증도 상당하다.

이 문제들은 북양양IC와 떡발재 도로 연결구간 740m를 잇는 연결 도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북양양IC~떡발재 구간을 직선화하면 양양에서 속초 주요 지역으로 진입하는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편의도 좋아지지만, 반대로 속초에서 양양을 향하는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불편 역시 해소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선거 당시 문제점을 파악한 김진태 도지사 역시 이 북양양IC~떡발재 연결도로 직선화를 주요 현안으로 생각, 공약했고 인수위 때도 세부 검토 끝에 확정됐다. 공약집 내 분류번호 4-84번에 이 내용을 명시하고, 임기 내 예산 확보와 설계를 한 후, 임기 후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 연결도로 직선화 사업을 지역개발계획에 추가하려면 속초시와 양양군의 상호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두 지자체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오랜 기간 암초에 부딪히고 있다. 연결도로 구간 740m 중 약 200m는 속초시, 약 500m는 양양군 관할인데, 양양군측에서 양양 내 유입되는 교통량 감소 우려를 이유로 연결도로 직선화에 대해 아직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다.

연결도로 직선화에 대한 속초시와 양양군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도에서 보다 적극 나서야겠지만, 진척이 없다면 법령에 따른

공식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다. 바로 '지방자치법'이다.

지방자치법 제165조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지자체의 장 상호간에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다툼(이하 '분쟁'이라 한다)이 생기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해쳐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이때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 조항에 규정된 시·도지사의 직권 조정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양양IC~떡발재 연결도로 직선화 문제는 속초시와 양양군의 이견으로 얼룩지고 있는 분쟁이다. 이 분쟁은 여러 해 동안 지자체 상호간, 그리고 도의 조정으로도 해결되지 않아 공익을 현저히 해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지 않은가?

고속도로를 포함한 도로 개설의 목적은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리성이다. 항공, 철도, 고속도로의 인프라를 모두 갖춰가고 있는 설악권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해결돼야 한다. 직권 조정이라는 마지막 방식보다는 우리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양양군, 속초시와 함께 이 문제를 협의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필자는 확신한다. 이 도로가 개설된다면 양양군과 속초시, 그리고 고성군을 찾는 관광객들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민의 불편이 해결되어 설악권의 상생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강원 함께 만들자”

(사)강원발전경제인협회(회장:이금선)는 지난 15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2023 강원 경제인 경영역량 강화 워크숍 및 제7주년 창립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노용호 국회의원, 육동한 춘천시장, 박기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김영래 강원일보 상무이사, 양숙희 도의원, 최성규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직무대리, 이병철 강원지방조달청장, 권오광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또 최대식 강원도농공단지협의회장, 장영호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 고광만 춘천상공회의소 회장, 송문숙 강원여성경영인협회장, 안정희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장 등 기관·단체장과 지역회장 및 회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강원발전경제인협 경영역량 워크숍·창립기념식
김진태 지사 “강원특별법에 법인세 감면 등 포함”



◇(사)강원발전경제인협회 제7주년 창립 기념식이 지난 15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웨딩홀에서 김진태 지사, 노용호 국회의원, 육동한 춘천시장, 박기영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김영래 강원일보 상무이사, 최성규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직무대리, 이병철 강원지방조달청장, 장영호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을 비롯한 내빈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신세희기자

이날 행사는 도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사기 진작과 회원 간 교류, 유관기관 간 유대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소상공인이 알

아야 할 법률 상식에 관한 특강이 진행됐다. 2부 창립기념식에서는 노진선 현대에너지 대표 등 지난 1년간 강원 경제인의 권익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3명에게 강원자치도지사 표창 등이 수여됐다.

이금선 회장은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에 이어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힘겨운 시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강원 경제인들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규제와 애로를 적극 발굴해 기업하기 좋은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는 “도내 경제인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협회의 창립 7주년을 축하한다”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기업에 대한 법인세, 상속세 감면을 넣은 만큼 기업하기 좋은 강원자치도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규호기자 leekh@

※유공자 포상 수상자 명단은 강원일보 홈페이지(www.kwnews.co.kr) 참고.

강원도민일보

2023 12 18 ()

06



강원발전경제인협회는 최근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2023강원 경제인 경영역량 강화 워크숍·제7주년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 서영

강원발전경제인협 지역발전 공로자 13명 표창

창립 7주년 기념식·역량강화 워크숍 식도 열렸다.

강원발전경제인협회(회장 이금선)는 최근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2023강원 경제인 경영역량 강화 워크숍'·'제7주년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박기영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육동한 춘천시장, 노용호 국회의원, 최성규 강원중기청 지역정책과장(청장 직무대리), 이병철 강원조달청장, 장영호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 경민현 강원도민일보 부사장 등을 비롯한 내빈과 협회 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주년 창립기념

식도 열렸다. 기념식에서는 지난 1년간 강원 경제인의 권익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한 육성공로자를 격려하기 위한 표창 수여도 진행됐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은 노진선 현대에너지 대표 등 세 명이 수상하는 등 총 13명이 표창을 수상했다.

이금선 회장은 "강원 경제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각종 규제와 애로를 적극 발굴·해결해 기업하기 좋은 강원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도는 강원지역에서도 100년 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선우

강원도민일보

2023 12 18 ()

23

“문화특별자치도 이룰 주민 주도 움직임 일어나야”

강원예총 ‘예술인의 밤’ 성료
 김수학 강원예술상 대상 수상
 21호 출판기념회·축하공연 등



한국예총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가 주최한 ‘2023 강원예술인의 밤’이 지난 15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김수학 조각가가 강원예술상 대상을 수상했다. 김정호

강원 예술인 6000여명의 한 해 성과를 돌아보고, 문화예술인들의 화합을 다지는 장이 마련됐다.

한국예총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는 지난 15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이재한 강원예총 회장을 비롯한 도내 12개 지역예총과 9개 도단위협회 임원, 회원 및 예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 강원예술인의 밤’을 열었다.

이날 김진태 도지사, 허영 국회의원, 정재웅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김종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신현상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주선 도문화원

합회장, 최찬호 강원민예총 이사장, 박관희 도의원 등이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만나 격려했다.

제12회 강원예술상 시상식과 강원예술계 21호 출판기념회도 함께 열렸다. 김수학 조각가(춘천미술협회)가

강원예술상 대상을 수상했고, 김형묵 전도음악협회 흥천지부장이 공로상을 받았다. 이도영 바이올리니스트와 이종섭 국악인은 청년예술인상을 받았다. 지난 10월 열린 대한민국예술축전에서 영화 ‘시기막질’로 영화부문 대상

을 수상한 김혜나 감독에게도 상이 전달됐다. 소프라노 민은홍과 팝페라 그룹 더보이스의 축하공연도 진행됐다.

김진태 도지사는 “건축재정으로 인해 곳곳에서 곡소리가 나오지만 내년도 예술인 창작지원 예산은 늘릴 계획”이라며 “최대한 공평하게 많은 예술인들이 혜택을 받도록 분배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한 회장은 “강원예총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60여년 역사를 성찰하며 새로운 비전을 모색했다. 각 분야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주시는 모든 예술인들께 존경을 표한다”고 했다.

김중석 회장은 “주민들을 중심으로 문화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한 주체적 움직임이 일어나야 한다”며 “강원 문화예술에 대한 자긍심이 지역에 큰 울림으로 퍼져나가기 바란다”고 희망했다. 김진형 formation@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 12 18 ()

11

江原日報

2023 12 18 ()

13



송정동 단체협·주민센터 어르신 효잔치 강릉시 송정동 단체협의회와 송정동주민센터(동장이건령)는 최근 동명초체육관에서 권성동 국회의원, 김흥규 강릉시장, 최승순 도의원, 이광식 송정동 통장협의회장, 조영임 새마을부녀회장, 김형섭 새마을협의회장, 심교만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송정동 어르신 송년 효큰잔치’를 개최했다.



고성군 희망나눔 봉사인의 밤 2023년 고성군 희망나눔 봉사인의 밤 행사가 지난 16일 고성군문화복지센터에서 이양수 국회의원, 함명준 고성군수, 김일용 군의장, 이지영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강원도민일보

2023 12 18 ()

21

“치유·순례길 조성 종교·문화·예술 중심지 거듭”

종합 토론

◇좌장=진장철 춘천국제물포럼 이사장

◇토론=△지철스님(월정사 사회과장) △최종수 도의원 △정영환 한국사찰림연구소경관사업본부장 △남성열 오대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장

△진장철 춘천국제물포럼 이사장(좌장)=“이번 오대산 에코포럼은 일반 포럼과는 차원이 다른 보편적인 가치가 담긴 실천 프로그램이다. 그야말로 문명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허브의 기능을 갖추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력 자체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말만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사찰림 뿐 아니라 월정사의 불교적 가치가 한 발 더 나아가 시민들에게 어떻게 적용될지 생각하고 익히는 장이 됐으면 한다. 에코포럼이 자타 공인하는,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는 유례없는 환경 선언으로서 훌륭한 결실을 얻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지철스님=“사찰에서 관리하는 특별한 불교의 자연유산인 사찰림은 보전산지로 지정될만큼 중요하지만 국가의 지원은 매우 부족하다. 종교·교육·역사·생태·문화·경제·관광 분야에서 모두 중요한 유산으로서 공익적, 경제적 기능이 함께 중시돼야 하는데 공익적 기능만 강조되는 현실이다. 사찰이 산림을 잘 관리하고 후대에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다. 사찰림은 불교계만이 아닌 수행과 전법 포교의 공간이다. 탄소중립 만큼 심각한 현대인의 정신병리적 고통을 치유할 인간 생태의 공간이기도 하다. 전영우 교수님의 말씀과 결을 같이 해서 치유길, 순례길을 만들어 마음의 안정

사찰림 가치 대비 국가지원 부족 공익적 경제적 기능 모두 중요 경관보호 앞장스님 인터뷰 추진 세계문화유산 지정 기반 구축 기후변화 영향 나무고사 우려 상록침엽수 모니터링 시책 마련 소화전 설치 등 산불 대비 철저 학술회의 개최 보존 대책 연구

을 찾는 공간으로 사찰림을 활용, 종교·문화적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추진해야 할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 또한 사찰은 기본적으로 채식하는 공간이라는 점도 사찰이 중요한 이유다. 채식은 탄소배출, 수질오염, 토지사용을 줄여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한다. 매일 100g 이상의 고기를 먹는 사람은 하루 약 10.3kg, 완전채식을 하는 사람은 약 2.5kg의 탄소를 배출한다. 육식 섭취를 100g에서 50g(햄버거 패티)까지만 줄여도 도로위 차량 800만대를 없애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미국 고산지대의 세쿼이아 거목은 얇게 뿌리를 내리지만 서로의 뿌리를 잡아주어서 넘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맞이한 기후위기는 이처럼 서로 기대고 도와서 헤쳐나가기 바란다.”

△최종수 도의원=“숲은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기후변화에 따라 나무 집단 고사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월정사 전나무숲을 이루는 상록침엽수를 지키기 위해 기후변화에 대비한 모니터링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주된 부근상수도 본관을 활용한 소화전 설치 등 산불대책도 필요하다. 오대산과 인제 봉정암, 영월 법흥사, 정선 정암사의 적멸보궁을 ‘순례길’로 재탄



지난 13일 평창 월정사 성보박물관에서 열린 2023 오대산 에코포럼에서 토론자들이 열린 토론을 벌이고 있다. 유희태



진장철 이사장 지철 스님 최종수 의원 장영환 본부장 남성열 소장

생시킴자는 전영우 교수님 제안은 월정사 사찰림을 자연·문화·예술의 복합 중심지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만큼 깊이 동참한다. 순례길이 연결되면 세계적 명소가 될 것이다. 내년 시행될 ‘자연유산법’에 따라 월정사 사찰림과 같은 자연경관이 추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짚어주셔서 큰 도움이 됐다. 유재삼 박사님 발표역시 조선헌조실록 기록을 통해 기후재난과 환경개선사업의 관련성을 탐구한항의 성에 감탄했다. 조선시대에도 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과학적 농업과 발명품 등 시도가 있었다는 내용이 흥미롭다. 이도형 연구원님 발표처럼 강원 각지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많은 정책이 준비되고 있다. 농업 분야는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 산림 분야에서는 기후변화취약 산림식물종 보전 및 계절생태변화 모니터링, 해양 분야에는

바다 조생성 사업 등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노력들이 결실을 얻도록 도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

△정영환 한국사찰림연구소경관사업본부장=“사찰림은 실질적으로 사회 복지 국가 실현에 도움이 되고 있다. 스님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오대산 사찰림이 유지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학문적 연구나 유네스코 지정 부분도 중요하지만, 국가와 스님들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일반산림 탄소 저장량은 1ha당 307t 규모다. 하지만 5개 사찰림의 평균을 내어보니 420t, 즉 1.37배의 산림탄소를 저장하는 결과치가 나온다. 사찰림을 일반 숲과 같은 공익적 가치로만 보는 것보다는, 불교유산의 수행 가치를 품고 많은 사람들이 쉬면서 장작의 영감과 깨달음을 얻는 공간으로써 더욱 높게 평가

되길 바란다. 주민들의 압박으로 스님들이 고초를 겪은 사례도 있다. 사찰 경관을 보호한 스님들에 대한 인터뷰도 수행해야 한다. 이런 노력들이 향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지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남성열 오대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장=“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장으로 서막중 한 책임감을 느낀다. 이번 포럼에서 정책이나 사업 계획에 반영해야 될 부분을 찾아 천년을 내다보는 새로운 오대산을 만드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2000년도에 월정사 전나무숲에 대한 논문을 쓴 적이 있다. 당시 숲의 보존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실었는데 정책까지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기초발제에서 신랄한 비판이 나와 마음이 쩡하다.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깊은 반성도 하게 된다. 향후 별도 포럼이나 학술회의를 통해 학계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연구를 진행하겠다.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기후변화를 연구한 부분은 특이하다. 다양한 부분에서 실록연구가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 부정 건립이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한 궁금증도 남는다.”

정리/김여진·김진형·양유근

2023 12 17 ()

강원신문
지방시대 글로벌 리더 gwnews.org

홍천여성의용소방대, '2023 연말총회' 성황리에 열려

김수미 기자

소방안전 유공자 시상 및 대원 화합의 한자리



홍천여성의용소방대는 지난 15일, 홍천군다목적센터 내 사무실에서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총회를 개최했다.

강원 홍천소방서 홍천여성의용소방대(대장, 박홍숙)는 지난 15일, 홍천군다목적센터 내 사무실에서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말총회에는 신영재 홍천군수, 박영록 홍천군의장, 이영욱 강원특별자치도의원, 황경화 군의원, 심금화 홍천읍행복지센터 읍장, 이주원 재난안전과장, 최종길 홍천소방서 대응총괄과장, 강인숙 홍천119안전센터장 등이 참석해 대원들을 격려했다.

소방안전 유공자로 임선애지도부장과 강명화 대원이 군수표창, 황보정희 구조구급반장과 안은영 대원이 국회의원 표창, 군의원 표창에는 박경자 대원과 윤혜경 대원, 하산유 대원과 박주현 대원이 도의원 표창을 수상했다.

이어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기탁하고, 홍천소방서 관계자 및 대원들은 관내 한 음식점에서 화합의 장을 만들며 행운권 추첨 등 교류의 시간을 마련했다.

박홍숙 대장은 “화재취약지구 순찰 및 가두방송, 여름철 물놀이 안전캠페인, 소방안전 돌봄 서비스, 각 행사 안전지킴이 활동과 더불어 강원특별자치도 전체 의용소방대 평가에서 입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한 해였던 만큼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역안전 지킴이로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미 기자 gwnews@hanmail.net

2023 12 17 ()

江原日報

[포토뉴스]대한적십자봉사회 고성군협의회
2023년 희망나눔 봉사인의 밤

2023년 고성군 희망나눔 봉사인의 밤 행사가 지난 16일 오후 고성군문화복지센터에서 이양수 국회의원, 함명준 고성군수, 김일용 군의장, 이지영 도의원, 엄기인 강원특별자치도 협의 회장, 박상을 고성군지구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2023 12 15 ()

江原日報

[포토뉴스] 화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화합의 장



화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화합의 장 행사가 15일 화천여성회관에서 최문순 군수(공공위원장), 정근섭 민간위원장, 노이업 군의장, 박대현 도의원, 이화원 군노인회장과 협의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화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화합의 장 행사가 15일 화천여성회관에서 열려 최문순 군수(공공위원장)가 안귀환 대표협의체 위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화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화합의 장 행사가 15일 화천여성회관에서 최문순 군수(공공위원장), 정근섭 민간위원장, 노이업 군의장, 박대현 도의원, 이화원 군노인회장과 협의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3 12 17 ()

江原日報

[동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재웅(춘천)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이무철(춘천) 경제산업부위원장, 박대현(화천)·박찬흥(춘천) 도의원은 18일 오후 4시 춘천 스카이컨벤션웨딩홀 2층 연회장에서 열리는 2023년 강원경제인 한마음대회에 참석.

당정 '2024강원대회 지원' 오늘 머리 맞댄다

GANGWON 2024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

문체부 장관·국힘 지도부·의원도·조직위·시군 관계자 등 참석
준비 상황 보고·붐업 확산 협의
추가 예산 지원 논의 여부 관심

속보=아시아권에서 처음 개최되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2024 강원대회)가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체(본지 12월 15일자 1면)를 가동, 대회 지원에 본격 나선다.

2024 강원대회 조직위와 강원도, 강

등·평창·횡성·정선 등 개최 시·군은 18일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의힘과 함께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당·정 점검 및 협의회의'를 갖는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지도부인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해 유의동 정책위원장, 이태구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장미란 제2차관이, 강원도·2024 강원대회 조직위에선 최중구 대표위원장과 김철민 사무총장, 김진태 지사, 김홍규 강릉시장, 심재국 평창군수, 김명기 횡성군수 등과 올림픽 개최지 지역구의원인 권성동·이철규·유상범 의원이 참석한다.

정부와 여당이 강원도와 2024 강원대회 조직위, 개최 시·군과 2024 강원대회 관련 회의를 갖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당과 정부에 조직위 대표 위원장 취임을 비롯해 시설과 인력 등 대회 준비 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당차원의 관중 참여 독려 등 대회 홍보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4 강원대회 추가 예산 지원도 이날 안건으로 논의될 지 주목된다.

2024 강원대회 예산은 총 852억원 규모다. 이와 관련, 조직위는 지난 14일 도청에서 진행한 '2024 강원대회 경과 및 준비 상황 보고'에서 예산 20억원 가량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직위는 기업 후원·마케팅 등을 통해 60억원을 자체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당정은 올림픽 붐업 등 홍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2024 강원대회 목표 관람객은 25만 명으로, 지난 13일 기준 대회 티켓 예매율은 11만표로, 조기 흥행은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국제 스포츠 대회라는 점을 고려하면 2024 강원대회의 국내외 인지도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조직위는 대회 기간 동계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 체험, K-POP 공연 등 페스티벌을 진행해 대회 붐업을 확산할 계획이다. 김덕형

동해 망상1지구 전 사업자, 대체사업자 공모 집행정지 소 제기

경제자유구역 동해 망상1지구 개발의 전 사업시행자 측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무효확인·취소분안 소송'에 이어 '대체사업자 공모절차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본지 취재 결과 망상1지구의 전 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 대표는 지난 15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대상으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 소장을 접수했다. 동해이씨티는 소장에서 "시행자 지정 취소는 강원도지사가 보유하거나 유보한 권한인데, 권한이 없는 동자청에 의해 취소 처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명백한 하자

이므로 무효"라며 "따라서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 등 후속 절차는 마땅히 정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결정은 도에서 법률상 검토를 끝낸 결과보고서를 받아보고 한 결정"이라며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전인수

2023 12 18 ()

江原日報

01

道, 국내 첫 글로벌혁신특구 도전 '최종 관문 진출'

강원도 포함 전국 8개 광역지자체 1차 평가 통과
27일 발표 평가회 ... 이르면 이날 4곳 선정 전망

속보=연말 국내 첫 '글로벌혁신특구' 지정(본보 10월19일자 1면·11월19일자 2면 보도)을 앞두고 강원특별자치도가 마지막 관문까지 진출하는 데 성공했다. 최종 경쟁률 2대1로 압축된 가운데 강원자치도의 '데이터 기반 첨단의료' 특화단지 구상이 전국의 치열한 경쟁을 뚫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강원자치도 등에 따르면 전국 14개 광역지자체가 18개 사업의 글로벌혁신특구 지정을 요청했다. 이 중 강원, 대전, 충북, 부산, 대구, 경북,

울산, 전남 등 8곳이 1차 평가를 통과했다. 이들 8개 광역지자체는 오는 27일 서울에서 발표 평가회를 통해 진검 승부를 벌이게 된다. 선정 결과는 평가 당일 발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2곳을 선정할 예정이었지

만 4곳으로 확대하는 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선정 분야는 첨단신산업 분야인 바이오와 모빌리티, 에너지, AI데이터 등 4개 분야다. 분야별로 1곳씩 선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강원자치도의 첨단의료 특화단지는 많은 규제가 적용되거나 활용 기준 자체가 없는 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AI치료제, 디지털의료기 산업 등을 육성하는 구성이다. 도

의 사업계획을 AI데이터 산업으로 분류할 경우 대구의 로봇·AI가 최대 경쟁상대다. 바이오 산업으로 분류하면 대전, 충북과 경합을 벌여야 한다.

글로벌혁신특구는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를 적용한다. **최기영기자**

2면에 계속

2023 12 18 ()

江原日報

02

道, 국내 첫 글로벌혁신특구 도전 '최종 관문 진출' -1면에서 계속

신기술에 대한 법령, 기준, 규격, 요건 등이 없거나 부적합하더라도 선진국 기준을 적용해 모든 실증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특구참여기업은 정부 및 대기업의 수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국내 첫 규제 프리지역이라는 측면에서 기업 유치 등의 상당한 과급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강원자치도는 춘천과 원주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 기반 첨단의료' 특

화단지 조성을 통해 새로운 국제 비즈니스 시장을 개척한다는 계획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내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860억원을 투자해 바이오·디지털헬스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12 18 ()
04

양양공항 7개월 만에 국제노선 운항 재개 주목

오늘부터 필리핀 전세기 4회 입국
관광객 스키체험·레고랜드 방문
플라이강원 입찰 결과 오늘 발표

-필리핀(마닐라) 전세편이 운항된다
고 17일 밝혔다. 국제선 재개는 플라이
강원 운항이 중단된 후 7개월 만이다.
필리핀 관광객 680여명은 양양공항과
마닐라를 연결하는 전세기를 타고 18
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4차례에 걸쳐
입국할 예정이다. 이들은 평창 용평리
조트에서의 스키 체험을 시작으로 춘천
의 남이섬과 레고랜드 테마파크, 강릉
BTS 버스정류장 등을 2박3일 일정으

로 방문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와 한국관광공사, 한
국공항공사는 필리핀 전세편 첫 입국객
을 맞이하기 위해 18일 양양공항 1층 국
제선 도착장에서 환영 행사를 갖고 22
일에는 한국공항공사 문화예술활동이
벤트인 '이륙워크' 음악공연을 마련할
예정이다. 양양공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와 한국관광공사, 강원도관광재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해외전담여행사간담

회 등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해외 현지
여행사 대상 공항팸투어를 진행하는 등
국제선 전세편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활동에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정광열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전세기
단체관광객이 머무는 동안 안전하고 불
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
후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지속해서
해외관광객 유치에 힘쓰겠다"고 말했

다. 한편 지난 지난 15일로 예정됐던 플
라이강원의 2차 공개매각 입찰 결과 받
표는 18일쯤 진행될 계획이다.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빠르면 18일
에 심사를 완료하고 서울회생법원의 공
식 보도자료가 배포될 예정"이라며 "서
울회생법원의 공식 발표 전까지는 공정
성 유지를 위해 최고득점자 선정 경과
를 미리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달
라"고 했다. 최훈

양양국제공항에 국제노선 항공편 운항
이 재개된다.
한국공항공사 양양공항은 18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양양

강원도민일보

2023 12 18 ()
04

춘천고 자율형공립고 전환 추진...도 교육청 "정해진 것 없다"

전국 50개 학교 중 강원 뭉 2곳

춘천고가 자율형공립고(자공고) 전환
을 준비한다. 춘천고가 자공고로 전환
되면 강원도내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17일 본지 취재결과 춘천고는 자공
고 전환을 준비 중이다. 자공고가 되면
정부와 교육청 지원금이 늘어나고 일반
계 고교와 비교해 자율적인 학교 운영
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특색있는 학사
운영이 가능해진다. 춘천고 관계자는
"선정이 되면 학교 지명도 상승은 물론
이고 지원금도 늘어난다. 무엇보다 지
금보다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게 될
것"이라 기대했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은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강원
특별자치도 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교
육부에서 구체적인 안이 내려온 게 아
무것도 없다. 전국에서 50곳 정도를 하

겠다는 것만 밝혀졌다"고 말했다. 50개
학교 중 강원도 뭉은 2곳 정도로 알려졌
다. 자율형공립고를 바라보는 교육당
국의 입장은 복잡하다. 학교가 특색 있
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점은 장
점이지만 신입생 선발 방식을 두고 진
통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재 춘천·
원주·강릉은 평준화지역이다. 그러나
자공고가 별도 전형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할 경우 지역 내 정착된 평준화 제
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
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과거 다른
시·도에서 평준화지역에 자공고를 운
영한 적이 있으나 추첨을 통해 신입생
이 입학하게 되면서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자공고 별도로 학교장 전형
을 운영해 신입생을 모집할 경우 지역
내 평준화 기틀이 무너질 수 있어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민엽

2023 12 18 ()

江原日報

01

올겨울 '최강 한파' 이번 주 내내 꽂꽂

‘영하 20도’ 안팎 강추위 엄습

눈길 교통사고·차량 고립 속출
계량기 동파·단수 피해 잇따라

지난 주말 강한 눈과 비가 내리면서 겨울답지 않던 포근한 날씨가 푹푹 얼어붙었다. 17일부터 강원지역 전역에 영하 20도 안팎의 강추위가 시작된 가운데 오는 24일까지 동장군이 맹위를 떨칠 전망이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8일 철원과 양구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는 것을 비롯해 춘천 영하 15도, 강릉 영하 8도를 기록하는 등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다. 대관령은 체감기온이 영하 21.6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춘천·원주·횡성·영월·철원·화천 등 6개 시·군 전역과 평창·정선·홍천·양구·인제군평지 등 5개 시·군 평지, 태백과 산지에는 한파경보를 내렸다.

강풍피해도 우려된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영동지방을 중심으로 바람도 4~9%로 강하게 부는 등 체감기온이 낮아질 수 있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시베리아발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며 한파가 몰려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우랄산맥 부근에 만들어지는 고기압인 ‘우랄 블로킹’으로 인해 시베리아 일대 냉기가 한반도를 향해 내려왔다는 분석이다.

갑자기 매서운 한파가 찾아오자 피해도 속출했다. 지난 14일부터 17일

(오후 5시 기준)까지 도내 곳곳에서 나무가 쓰러져 도로를 막거나, 결빙, 낙석, 강풍으로 인한 간판 낙하 등의 피해가 이어졌다. 15일 오전 10시3분께에는 평창군 진부면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진부3터널 인근에서 차량 4대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추돌, 4명이 다쳤다. 이에 앞서 오전 7시47분께에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상남6터널 인근에서 5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밤 10시12분께에는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안반데기 오르막길 구간에서 차량 2대가 빙판길에 고립, 임산부를 포함한 6명이 2시간여 만에 구조됐다.

폭설과 한파로 인해 얼어붙은 나무가 쓰러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15일에는 횡성군 둔내면 삼교리 도로에서 나무 13그루가 한꺼번에 쓰러져 인근 도로가 통제됐고, 같은날 평창군 국도 31호선 운두령 구간에서는 쓰러진 나무에 전선이 끊어져 한전 등이 긴급 복구작업을 했다.

동파 신고도 잇따랐다.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에 따르면 17일 오전 문막읍 명봉산길의 우수관이 파열됐다. 17일 오후 6시 현재 원주와 횡성에서 14건의 계량기 동파 신고 등이 접수됐으며 양양에서는 수도물이 얼면서 2건의 단수피해가 발생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18일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도 영하에 머물며 춥겠다. 한랭질환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예보했다. 박서화·김준겸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12 18 ()

/ 17

농촌 유학, 작은학교 회생 기대

-폐교 막고 공동화 완화, 확대 유지 필요

위기에 몰린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한 농촌 유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농촌 유학은 인구 유출에 따른 시골 학교의 폐교를 줄여 지역 공동화를 완화하는 효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도시학교의 획일화된 교육과정과는 달리, 농촌과 자연을 배우고 차별화한 학습프로그램의 장점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호응이 있습니다. 실제 도내 농촌학교 현장에서 유학 생활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 유학은 소규모 학교 활성화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학을 지속해 확대하고 유지할 정책을 모색해야 할 시기입니다.

강원도내 농촌 유학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4개 지역 6개 학교는 지난 9월부터 도교육청의 강원농촌 유학 사업에 참여 중입니다. 농촌 유학을 진행 중인 학교의 만족감은 높은 편입니다. 적정 학급수를 유지할 수 있었고, 학생이 적을 때 할 수 없었던 여러 교육 활동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농촌 유학이 활성화한 영월 지역은 학교와 지역의 반응이 긍정적입니다. 영월 옥동초는 병설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합쳐 전교생이 39명입니다. 이 가운데 14명(36%)이 농촌 유학생입

니다. 영월 녹전초도 전교생의 30%가 유학생입니다. 학생이 늘면서 학급수도 기존 5학급에서 6학급으로 확대, 전학년 단수학급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전교생이 22명인 흥천 원당초는 지역 출신 학생은 6명에 불과해 사실상 유학생들이 학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흥천 삼생초도 유학생 유입으로 학급 1개가 증설됐습니다. 인제 용대초도 5명이 농촌 유학을 와 있고, 춘천 송화초도 전교생 40명 가운데 도교육청 사업과 기존 유학생을 합쳐 총 14명이 외부 학생입니다.

도시에서 유학 온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감을 표시한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중간소음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마음껏 뛰놀게 해주고 싶어 유학을 결정했다는 한 가족은, 남편을 포함한 4명 모두가 흥천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또 다른 한 가족은 농촌 유학에 만족해 연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촌 유학이 호응을 얻는데에는 도교육청 등 관련 기관의 거주비 지원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 유학을 확대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교육 시스템이 마련돼야 합니다. 도시 학생과 학부모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교육당국과 지자체의 지원 범위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12 18 ()

/ 17

강릉 20만명 위기, 도시경쟁력 우려

-원주 36만명 대비돼 불균형 산업 혁신 등 획기적이어야

강릉이 인구감소 여파로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단독 선거구를 갖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에 비해 원주시 분구에 이어 춘천시도 단독 분구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에 제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확정안 인구 편차 허용 범위가 13만 6600명 이상 27만 3200명 이하로 정해지면서 춘천은 분구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반면 강릉은 단독 기준에 미치지 못해 양양과 합한 선거구안이 나왔습니다. 인구감소는 정치력 축소로 직결되기에 강원 3대 도시로 불리는 강릉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2000년만 하더라도 원주는 27만여명, 춘천은 25만여명, 강릉은 23만여명선이었습니. 2005년 원주는 29만여명으로 증가했고 춘천은 25만명대를 유지하며 다소 늘어났으나, 강릉은 22만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 2023년 11월 현재 원주는 36만명, 춘천은 28만명, 강릉은 20만명입니다. 원주는 37만명대를 향하고 강릉은 20만명 붕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두 지역 격차는 2배 가까이 벌어집니다. 동해안권에서 중간 거점도시로 역할을 해오던 강릉이 역할을 잃어가는 신호이자 도시 경쟁력 상실을 우려하게 됩니다.

정성호 강원대 교수는 논문 '강원도의 인구이동 유형과 특성'을 통해 2000년대 중반부터 강릉이 중간거점도시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음을 2008년에 경고했습니다. 2000~2003년 강원 중간 거점도시인 춘천, 원주, 속초, 동해, 강릉 5곳이었으나 2004년 이후엔 원주 춘천 2곳만 기능이 유지되는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강릉은 속초·동해와 달리 서울, 경기 외에도 춘천 및 원주로 동시에 인구가 유출되는 특성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교통망이 전국적으로 연결되고 기업도시·혁신도시 조성 이후 발전 가능성이 높게 인식되면서 인구를 끌어들이고, 도청 소재지인 춘천은 서울 등 수도권과 교통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강릉 인구는 도내외 양 측면으로 유출돼 온 것입니다.

20만명 붕괴 위기에 직면한 강릉시는 7대 추진 과제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와 정주여건을 향상해 2026년까지 22만명을 회복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인구 늘리기는 불균형한 사회기반시설부터 공공기관과 이주민 유치, 산업구조 혁신, 외부인에 우호적인 분위기까지 복합 작용되는 사안입니다. 타시군과 비슷한 정책 정도로는 목표달성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2023 12 18 ()

/ 19

江原日報**올 강원자치도 수출 '선방', 지속 가능토록 해야**

강원특별자치도 내 기업들의 올해 수출 실적은 타 지역에 비해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기조 유지와 경기 침체 우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악재가 있었음에도 수출 실적이 호조를 보인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올 들어 1월부터 10월까지 강원 특별자치도 내 누적 수출액은 22억6,453만 달러(한화 2조9,393억원·14일자 환율기준)로 전년 동기(23억3,801만달러·한화 3조323억원) 대비 3.1%(7,348만 달러·한화 953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국 수출액이 평균 10.0%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양호한 셈이다. 특히 올해 강원도 수출은 '효자품목'인 의료용전자기가 주도했다. 1~10월 누적 4억134만달러 수출액을 기록, 전년(3억6,036만달러) 대비 11.4% 증가했다. 의약품(1억7,786만달러)은 11.6%, 면류(2억1,058만달러) 역시 6.8% 늘었다. 특히 화장품(1억6,856만달러)이 무려 26.1%나 급증하며 수출 신장을 이끌었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다. 자동차 부품(-4.6%), 시멘트(-15.3%), 합금철(-62.8%), 주류(-11.3%) 품목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수출 1위국인 미국이 4억7,874만달러(한화 6,209억원)로 7.8% 늘었지만, 중국 수출(2억6,297만달러·한화 3,410억원)은 11% 감소

했다. 경기가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 수출이 신장된 것은 강원경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일찍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았던들 이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지역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희망적인 신호다. 도내 기업들과 지자체는 여기에서 안주하지 말고 박차를 가해야겠다. 안팎에 도사린 위험을 면밀히 살피면서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수출기업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성장 불씨를 살려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수출이 활기를 띠면 답답했던 지역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강원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나와 주기를 바란다. 이를 바탕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의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 강원자치도의 성장을 위해 관광서비스업 외 제조업 분야의 고용 창출을 어떻게 늘려 나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더욱이 수려한 자연환경과 관광을 어떤 형태로 결합할 것인지 등 종합적인 경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여기에서 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방소멸 위기 시대에 주민, 시민사회단체, 행정 등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고민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江原日報

2023 12 18 () / 19

한 달 남은 '동계청소년올림픽', 평창의 열정으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이하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가 딱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내년 1월19일부터 2월1일까지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 횡성군 등 4개 지역에서 14일 동안 열린다. 선수 1,900여 명을 포함해 전 세계 80여 개국 관계자 1만5,0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아시아지역에 처음 열리는 이번 대회를 개최하면 우리나라는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 및 청소년올림픽 이 3개를 모두 치른 유일한 아시아 국가가 된다. 선수촌 개촌 일정이 확정되고 일부 경기 티켓이 매진되는 등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대회의 성공을 위해 2,0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팔을 걷어붙였다.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을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시설은 단연 최고이고, 준비 인력의 60%가 평창 대회 경험자들이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대회 개막까지 추가 자원 확보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대회 예산은 총 852억원이며 20억 원가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조직위의 판단이다. 조직위는 마케팅과 협찬 등을 유치해 해결할 계획이다. 지금까지의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대회가 끝날 때까지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배가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대회는 세계의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를 주제로 화합하고 도전 정신을 키우는 지구촌 종합스포츠 대축제로 '어게인 평창'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한일월드컵, 2018

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로 국제사회에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던졌던 값진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올림픽이 강원자치도로 거듭난 평화의 성지에서 열린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에 평화를 추구하는 올림픽 정신을 다시 점화할 수 있는 기회다. 전 세계 청소년 화합과 인류 평화의 여정을 이어가는 빛나는 무대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다.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단순한 국제 스포츠행사가 아니다.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역동적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올림픽 유산을 계승·발전시키고 나아가 지역과 국가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이 돼야 한다. 또한

내년 1월19일부터 2월1일까지 열려
선수촌 개촌·경기 티켓 판매 등 준비 순조
세계 청소년 화합과 평화 여정 잇는 무대 돼야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대회의 국제적 수모를 모두 만회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자체는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통해 세계 동계스포츠의 성지로 확고한 위상을 세워야 한다. 이는 향후 지역 발전과도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 평창동계올림픽의 열정을 다시 살려내야 한다. 강원자치도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통해 지역의 큰 발전을 이뤄냈다. 동계청소년올림픽 역시 대회의 가치와 이상을 충실히 구현하면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대회로 치러야 한다. 그동안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빈틈없이 대비해 왔다. 이제 강원인의 저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